

북한산 인평대군 송계별업(松溪別業)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송석호* · 조장빈** · 노재현***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 **한국산사회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 ****세계상상환경학회

1. 서론

조선유학에서 출처지의(出處之義)는 사대부들의 올바른 덕행을 위한 근본적인 마음가짐이었다. 대의명분에 맞다면 나아가 벼슬을 하는 것이고, 관직을 사양하고 은둔(隱遁)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능력을 갖춘 사대부(士大夫)는 국가 발전을 위해 관직을 가져야 하나 세속의 욕심을 저버리고 재야에 은거하며 수양하고 제자를 양성하거나 친구들과 교유하기 위해 본제(本第)에서 조금 떨어지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혈(穴) 자리에 소박한 별서(別墅)·별업(別業)¹⁾을 조영하여 소일했다.

이러한 별서·별업에서의 수양은 자연의 순리를 따름으로써 무위의 법도를 체득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도가 사상이 바탕이 되어 발현된 것이며²⁾, 나아가 성리학적 관념인 격물치지(格物致知), 유물유칙(有物有則) 등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의미를 부여해 정원요소에 투영함으로써 이상세계를 그려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예로부터 동천복지(洞天福地)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산수가 수려한 명산에 별서·별업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상향의 실현 장소를 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한양의 진산(鎭山)이었던 삼각산(三角山)³⁾ 역시 은일했던 사대부

들이 명승지를 찾아 유산(遊山)했던 대표적인 곳이었다. 도선사(道詵寺), 태고사(太古寺), 화계사(華溪寺), 문수사(文殊寺), 진관사(津寬寺) 등 현재 남아 있는 30여 곳의 사찰 등지에 유숙하며 삼각산 곳곳의 명승지를 둘러보고 유산기를 남겼고, 나아가서는 적지에 별서·별업을 조성하여 은거한 것이다.

북한산(北漢山)은 삼국시대부터 부아악(負兒岳), 횡악(橫岳), 한산(漢山)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 성종(成宗, 재위 981~997)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천년동안 삼각산으로 통용되었고 화산(華山), 화악(華嶽)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⁴⁾ 1983년 도봉산(道峰山)지역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른다.⁵⁾

백운대(白雲臺), 만경대(萬景臺), 인수봉(仁壽峰)의 삼각산 [명승 10호]에서 남쪽의 보현봉(普賢峰)을 거쳐 이어지는 주맥은 백악(白岳)으로 솟으며 서울의 주산(主山)이 되었고, 주맥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에 아름다운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백운동(白雲洞), 중흥동(中興洞), 장춘동(長春洞), 옥류동(玉流洞), 청계동(淸溪洞), 노적동(露積洞), 영천동(靈泉洞), 은선동(隱仙洞), 용계동(龍溪洞), 규룡동(虯龍洞), 잠룡동(潛龍洞), 용유동(龍遊洞), 청담동(淸潭洞), 조계동(漕溪洞), 청하동(靑霞洞), 벽하동(碧霞洞), 자하동(紫霞洞), 삼천동(三千洞) 등의 지명이 붙여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중흥동과 조계동을 명승으로 표기하고 있다.⁶⁾

현재 북한산의 별서·별업유적으로는 중흥동 민지사(閔漬寺)·세심루(洗心樓), 조계동 송계별업(松溪別業), 청담동 서산정사(西山精舍)·와운루(臥雲樓), 우의구곡(牛耳九曲) 겸산루(兼山樓)·수재정(水哉亭)이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⁷⁾는 미진한 형편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조선시대 삼각산 조계동 송계별업으로 곧,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의 별업이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1에 위치하며, 현재의 구천폭포 일대를 중심으로 한다. 구천폭포는 북한산성 대동문(大東門)에서 강북구

1) 조선시대에 별서·별업이라는 용어는 어느 하나가 상위개념을 가지지 않았다. 근래의 연구에서 보여 지는 '별장형 별서', '별업형 별서'라는 용어는 별서가 별업 및 유사용어들을 포함하는 최상위개념으로 인식하게 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다.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결과, 이 두 용어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농업을 위한 목적, 후학양성을 위한 목적, 벗과 교유하기 위한 목적, 조상을 모시기 위한 목적, 이상향 구현의 목적을 가졌으며, 별서와 별업, 두 용어 모두 위의 목적들을 중복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해왔다.

특히, 별업의 경우 효(孝)문화의 산실로 인식되어져왔는데, 본 연구인 송계별업(松溪別業)을 비롯하여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광릉별업(廣陵別業),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의 회우정(喜雨亭) 별업[현재의 망원정], 박치기(朴致箕, 1825~1907)의 매천별업(梅川別業)등 다수의 별업들에서 효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조영된 점에서 별업의 정의 대한 재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원고의 서론에는 별서, 별업, 별장(別莊), 별제(別第), 별저(別邸) 등의 유사용어중 문헌상 사용빈도가 높은 별서·별업을 택하여 명제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 허균(2002)를 참고하여 내용을 증보함.

3) 본 연구의 제목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산으로 명기함.

4) 『북한지(北漢誌)』, 김윤우(1995)를 참고하여 작성함.

5) 북한산 연평군 탐방객은 865만명(2009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다.

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 한성부(漢城府).

7) 최재남(2013)은 조계별업의 풍류와 흥취에 관하여 논함. 김종태(2015)는 석양루를 중심으로 효종과의 우애를 연구함.

수유동 방향의 아카데미탐방지원센터로 흐르는 계곡에 있다.

연구진[한국산서회, 韓國山書會]은 2013년 3월 인평대군 송계별업 터, 주변의 구천은폭(九天銀瀑) 바위 글씨, 부석금표(浮石禁標) 바위 글씨, 폐사지(廢寺址) 등을 강북구청에 공식적으로 '서울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고, 당시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김성구(전 경주국립박물관), 홍병화(조계종 문화재팀)와 함께 1차 답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진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송계별업 바위 글씨, 홍예교 추정유구, 주춧돌 받침유구, 장대석 기반유구 등을 추가로 발견하여 대상지가 인평대군의 별업 터임을 고증하였다.

본 연구는 인평대군의 송계별업을 복원하고자 수행되는 기초연구로서 인평대군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보고, 제택과 별업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보았다. 또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별업의 공간구성을 규명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활용된 문헌자료로는 인평대군의 『송계집(松溪集)』·『연행록(燕行錄)』과 북한산을 유람했던 사대부들의 유산기, 시문 등이 있고 도상자료로는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房全圖)」·「광여도(廣輿圖)」·「동국여도(東國輿圖)」가 활용되었다.

II. 인평대군의 활동 및 별업의 조영배경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瑄, 1622~1658)는 인조(仁祖, 재위 1623~1649)의 셋째 아들로, 어머니는 인열왕후(仁烈王后, 1594~1635)이며,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와 봉림대군 곧, 효종(孝宗, 재위 1649~1659)의 동생이다. 자는 용함(用涵), 호는 송계(松溪)이다. '송계'는 인평대군이 삼각산 조계동에 별업을 짓고, 그곳을 사랑하게 되어 자호한 것이다.⁸⁾

인평대군은 인조 6년(1628) 7세에 대군으로 봉해졌고, 어린 시절 봉림대군과 함께 윤선도(尹善道, 1587~1671)에게 학문을 배웠다. 인조 18년(1640) 불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귀국을 위해 인질로 심양(瀋陽)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온 이후, 인조 19년(1641) 타락산(駝駱山) 기슭에 효종의 잠저(潛邸)와 마주보도록 제택을 지었다. 2층으로 된 누각에는 석양루(夕陽樓)라고 편액 하였는데, 마주보이는 봉림대군의 조양루(朝陽樓)의 뜻을 차운한 것으로, 불모로 잡혀간 봉림대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두 형제간의 우애는 후세에도 되새겨질 정도로 각별하였고, 인조 또한 인평대군을 매우 아껴, 훗날 궁궐의 재목을 뜯어다가 한강변에 정자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인평대군의 정치적 배경은 인조 24년(1646)에 조계동 별업을 조영하였을 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에 "동대문 밖은 다 인평대군이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어조의 상소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소는 단지 면적만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인평대군 제택의

규모와 화려함이 한양에서 제일 으뜸이었고, 봉림대군의 본궁(本宮)보다도 뛰어난 정원을 소유했기 때문이었다.

누각방 타락산 아래에 있다. 용흥궁과 동서로 마주 하여 건립되었다. 석양루가 있는데 기와와 벽에 조각하고 그림을 그려 그 규모와 화려함이 여러 제택 중에 으뜸이다.⁹⁾

누각과 정원, 연못을 잘 꾸며 규모와 화려함이 서울에서 으뜸이었다. 정원에 백매화와 홍매화, 살구, 수선화, 단풍나무, 녹나무, 오동나무, 대나무, 소나무, 노송나무 등 거의 천 종을 심어 놓아 봄 가을로 꽃이 피고 낙엽이 질 때면 금빛과 푸른빛의 나비, 갈색의 잠자리, 비취빛 청둥오리, 금계, 비오리 등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물 위에서 헤엄을 쳐 마음과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인평은 특히 손님을 좋아하여 그 집에 찾아온 당대의 사대부들이 운자를 나누어 시를 짓고 술을 권하느라 어깨가 부딪히고 소매가 닿을 지경이며 거마가 오가고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날마다 동네에 들렸다.¹⁰⁾

주지한대로 인평대군 제택의 규모와 화려함이 뛰어났던 이유는 인조, 효종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시서화(詩書畵)에 능하여 빈객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성품에서도 발현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신으로 심양과 연경(燕京)을 다니면서 명나라 화가인 맹영광(孟永光)과 교류하게 되었고, 조계동 별업에도 초청하여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III. 송계별업 조영과 입지적 특징

『송계집』 4권에는 인평대군이 삼각산을 유산하던 중 조계동 폭포 근처에 별업을 조성한 사유를 적어두었다. 인평대군은 평소에 들어왔던 조계동의 빼어난 경치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인조 24년(1646) 3월에 별업을 조성한 것이며, 보허각(步虛閣)과 영휴당(永休堂), 돌다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각 은폭이 여산에 뒤흐지 않는다는 말을 익히 들었으나 가보지 못하다가 병술년(1646) 3월, 우연히 조계동을 유람하던 중 마침내 그 빼어난 경치를 보게 되었다. 한 기둥 물줄기가 나는 듯 흘러내리니 이름과 실체가 다르지 않았다. 이에 구덩이를 파고 골짜기를 메워 누대와 정자를 지으니 더없이 맑고 깨끗하였다. 때때로 거문고와 술병을 들고 바람과 달을 노래하며 맑은 물에 목욕하고 아름다운 골짜기를 소요하였다. 각은 <보허>라 하고, 당은 <영휴>라 이름하였다. 아, 천백 년 후에 아름다운 기둥과 서까래는 비록 무너지고 없을 것이나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은 돌다리와 은폭이 아니겠는가?

타락산 기슭에 있는 제택과 조계동에 위치한 별업간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7km이다. 하지만 실제 이동 동선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산을 넘어가거나 돌러가야 했기에 20km 내외로 판단된다. 이는 하루 안에 왕래하기는 어려운 거리였기에 당(堂)

9) 東國輿地備考, 『漢城府(第宅)』: 在建德坊駝駱山下. 與龍興宮東西對起. 有夕陽樓. 瓦巖皆雕畫. 宏麗甲諸第. 김종태(2015)의 논문 재인용.

10) 南公轍, 金陵集, 『夕陽樓記』: 於是治臺榭園池. 鉅麗甲於國中. 園植紅白梅杏水仙花楓楠桐. 竹松檜幾千種. 立春秋花開葉脫時. 金碧翅蚨蝶. 褐色蜻蜓. 翡翠青鴨. 錦雞鸕鷀之屬. 聚散游泳. 心目炫耀. 김종태(2015)의 논문 재인용.

8) 且愛槽溪水石. 作亭榭. 顏其堂曰永休. 公之自號松溪以此也. [1]

을 두고 기거한 것으로 보인다.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으로 국가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산 금표(四山禁標)를 정해두고 관리하였는데, 조계동이 그 경계선에 있었다. 현재 별업 근처에 금표 4기가 확인되었고, 조계동이 부석소(浮石所)였음을 알리는 사릉부석감역기(思陵浮石監役記)도 폭포 인근에 각자되어 있고, 수유동 가마터가 폭포 하류에 있다. 조계동의 지명은 조계사(曹溪寺)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조계사지는 구천폭포에서 대동문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폐사지로 추정되고 있다.

IV. 송계별업의 공간구성요소 해석

구천은폭(九天銀瀑) 바위글씨는 인평대군이 별업의 터를 정하게 된 핵심 경관요소로써 구천은폭을 중심으로 별업이 구성되어 있다. 구천은폭은 계곡을 따라 11층으로 이어져있으며, 바위글씨는 인평대군이 사신사로 청을 방문할 때 예방(禮房)을 맡은 당하(堂下) 전 현감인 이신(李伸)의 글씨로, 경희궁(慶熙宮) 흥화문(興化門)을 편액한 당대 명필이다. 현재 '九'자의 상단부가 깨져있는데, 빙벽등반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송계별업(松溪別業) 바위글씨는 이곳이 인평대군의 별업임을 입증해준다. 곧, 인평대군의 글씨이다. 구천은폭 바위글씨를 바라보고 좌측에 층으로 쌓여있는 넓적바위 최상층에 각자되어 있다. 각자된 바위는 앞으로 약 45°도 기울어져 있고, 구천은폭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폭포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이 『기언별집(記言別集)』에 송계별업 각자를 언급하였다(현장 조사중에 처음 발견됨).

보허각(步虛閣)은 송계별업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진 누각으로 인평대군이 관폭(觀瀑)을 하며 별업을 향유했던 핵심건물이다. 흥예교의 중간에 창벽, 한담이 각자된 바위를 지나면 큰 바위에 보허각이 각자 되어있고, 사람 한길만큼 더 올라가면 보허각에 오르게 되며, 보허각 북쪽으로는 하얀 바위가 평평하게 깔려 층층으로 마주보고 서게 구성되어 하늘의 작품 같았다고 전한다. 곧, 성역으로 진입하여 이상향을 실현하는 장소에 보허각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허각에 오르면 구천은폭 각자를 포함한 11층 폭포를 모두 굽어볼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송계별업 각자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 제택의 모습처럼 보허각은 화려하게 단청이 된 건물이었고, 건물의 제도가 절묘하여 대부분 돌로 되어있었다. 18세기 중반에 건물이 소실되었고, 20세기에 보허각이 각자된 바위마저 사라져 지금은 주춧돌 흔적만 남아 있다.[2,3,6,7,8,9]

비홍교(飛虹橋), 창벽(蒼壁), 한담(寒潭) 보허각과 연결되는 흥예교의 이름은 '비홍교'로 들어가는 오른쪽 교각에 암각되었다. 다리의 중간에 깊은 담이 있는데, 담 앞의 입석에 '한담'으로 각자되었다. 곧, 다리의 아래 위에 '창벽'과 '한담'을 크게

새겨놓았다. 다리를 통해 선계로 진입하는 탈속적 관념으로 별업이 조성되어 있다.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낮게 축조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흥예교 추정유구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한 상황이며, 문헌상 계곡을 연결하는 다리는 여러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3,9]

영휴당(永休堂) 현재의 배드민턴장에이 본래의 영휴당 터이다. 인평대군이 즐기고 대흥사(大興寺)로 바뀌었다. 석계(石溪)와 조금 떨어지고, 굽어보이는 곳에 당을 짓고 기거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보허각과 100m 정도의 거리를 보이며, 보허각 추정자리에서 배드민턴장이 보인다. 현재 장대석이 유구가 남아있다.

V. 결론

송계별업은 인평대군이 인조 24년(1646)에 조계동을 유람하고 조성한 별업이다. 보허각, 영휴당, 구천은폭, 송계별업, 비홍교로 공간구성을 이룬다. 내원은 보허각과 구천은폭 사이의 공간으로 창벽, 한담, 비홍교, 보허각, 송계별업을 바위에 세기고 의미를 부여해 해석한 공간이다. 외원은 영휴당에서 11층의 폭포를 모두 포함하며, 보허각에서 사방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짜여졌다. 특히, 비홍교를 지나는 과정에서 한담과 창벽을 마주하게 되고 높이 솟은 보허각에 올라 구천은폭을 바라보는 단계적 행위는 속세에서 성역으로 들어가 이상세계로 다가가려는 조영자의 치밀한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송계별업은 타락산의 제택과 하루 안에 왕래하기는 어려운 거리이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당이 세워졌다. 기존 별자들이 검소하게 조성된 반면, 본 연구는 조영자가 대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청 및 건물의 제도가 화려하게 조성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인평대군의 송계별업 복원의 기초자료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역하지 못한 유산기들이 더 남아 있기에 추후 연구들에서의 내용을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인조실록(仁祖實錄)』.
2. 『기언별집(記言別集)』.
3. 『난곡집(蘭谷集)』.
4. 『무명자집(無名子集)』.
5. 『북한지(北漢誌)』.
6. 『성호전집(星湖全集) 삼각산유람기(遊三角山記)』.
7. 『속음청사(續陰晴史)』.
8. 『손재집(損齋集)』.
9. 『자연당유고(自然堂遺稿)』.
10. 『신도비명(神道碑銘)』[嶺中樞府事臣李景奭奉教撰].
11. 김종태(2015) 『麟坪大君房全圖』와 御製祭文을 통해 본 朝鮮王室의 友愛 宣揚. 민족문화(45) 313-353.
12. 최재남(2013) 인평대군의 가곡 향유와 <몽천요>에 대한 반응. 한국사기문화학회(31) 375-403.
13. 김윤우(1995) 북한산 역사지리. 서울: 범우사.
14. 허균(2002)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서울: 다른세상